

편집자의 말

러시아가 돌아오고 있다, 국제정치의 한복판으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의 하나로! 꼭 25년 전 침묵 속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간 소련의 뒷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거의 아찔한 격세지감을 불러일으킨다. 소련의 후계국가 러시아의 이름은 한때 장삼이사들에게도 별 신통한 인상을 주지 못했었다. 내부의 사회경제적 혼란은 이 나라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현저히 하락시켰고, 러시아는 한때 볼쇼이 아이스쇼 단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주 외국에 내보내어 공연케 하는 것으로 자국의 존재를 알리는 나라 정도로 여겨졌다. 냉전시대 소련의 베틀 누아르(bête noire)였던 미국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협주곡의 팡파르를 울리며 세계질서의 유일한 패권국가로 질주하는 것을 러시아는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 25년 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제국이기를 포기한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국이 당연히 지녀야 할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포용성을 포기하고, 다양함과 혼종성에 대한 관대한 용인의 자세를 팽개치고, 새로운 가치나 질서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폐쇄적 인종주의와 강자의 무자비한 군림과 마초주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새로운 집권(예정)자의 입을 통해 선언했다. 게다가 그는 합법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자이다. 바로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국제정치의 중심축을 향해 다시금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패권을 다져가던 러시아는 이제 그 영역을 벗어나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각 지역의 갈등과 분쟁에 개입하고 결정의 지렛대 역할을 자임하려 하고 있다. 쌍두의 독수리는 다시 매서운 눈으로 동서를 주시하며 그의 발부리의 장악력을 시험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제국의 지금까지의 존재방식은 사양하되 중국만은 굳이 견제하겠다는 트럼프가 러시아의 집권자에게는 강력한 친밀감을 표명함에 따라 국제질서의 재편성에서도 이것이 반영되리라 보인다. 국제사회는 미국-러시아-중국 삼자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냉전질서의 형성을 예측하고 있다. 그리하여 트럼프와 함께 단연 세계를 긴장시키는 주인공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그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친러 정권인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의 권력을 거의 되살려냈고 이란-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서남 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쿠릴열도 반환을 촉구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러시아는 영토를 두고 거래하지 않는다”고 일갈하며 동아시아에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 패권은 당분간 공고히 유지되리라 예상된다. 물론 1세기 전에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 후 새로운 소비에트 사회가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강력한 이념의 힘으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던 것과는 달리, 21세기의 러시아는 이념 없는 철혈의 하드웨어로, ‘현상유지(status quo)’의 보증자 혹은 시리아 내전의 경우 ‘전쟁 이전의 현상회복(status quo ante bellum)’의 주재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고 보면 이제 21세기형 러시아 제국을 말할 상황이 된 것일까? 소련 해체 후 25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간되는 『러시아연구』 제26권 제2호는 줄기차게 자기정체성과 자기존재를 주장하는 러시아와 러시아인의 모습을 살펴보는 글들로 채워져 있다. 역사 속에서도, 현재에도 그 모습은 명암이 교차하는 착잡한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 중심주의에 맞서 러시아의 세계제국적 위상을 굳이 인정받고자 하던 러시아 문인들, 2차 세계대전 직후 식민지에서 막 벗어나 사회주의 소련의 위용을 접하고 이에 감탄하는 한국 문인, 이슬람권을 지배하면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억압하면서 조종하던 러시아 제국정부의 정책과 현재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후유증적 현상들 등,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과 서, 남과 북을 다 아우르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고수하기 위해 고투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온갖 담론과 정책상의 대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호 첫 번째 논문으로 실린 강봉구의 글,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제휴?: 시리아 내전 개입의 의도를 중심으로」는 바로 이처럼, 역내 패권유지라는 그 동안의 정책주안점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패권 혹은 준패권 국가로 다시 발돋움하려는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위상 변화를 보여준다. 옛 제국 시절, 그리고 2차 대전 직후 한동안 이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누렸던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의 개입을 계기로 다시 이란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강봉구의 글은 러시아-이란 관계를 역사적으로 개관한 후 현 상황에서의 양국의 의도,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이 같은 바탕 위에서 그는 양국 관계가 ‘일시적인 파트너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가 보기에 그 공통분모는 서방에 대한 양국의 반감이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러시아의 대이란 영향력은 일방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이란의 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패권을 지향하는 이란과 세계적인 패권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반서방주의를 매개로 하여 서남아시아에서 어떤

공고한 화학 반응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주목해 볼 일이다.

김진영의 논문 「이태준의 ‘붉은 광장’: 해방기 소련여행의 지형학」은 소련사회와 한국 지식인의 만남의 한 인상적인 단면을 통해 해방직후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지식인들의 정신적 좌표를 점검한다. 식민지 조선시기, 서정미 넘치는 글월로 빼어난 문장력을 자랑하던 이태준은 해방 후 『소련기행』에서 ‘첫 사회주의 국가’의 위용과 업적에 환호한다. 소비에트를 잃고 끝없는 우울의 늪으로 빠졌던 1990년대 일부 지식인에 비하면 이 시절의 이태준은 분명 더 행복한 인간이었으리라. 그러나 소련에 대한 이태준의 열광과 1990년대 사람들의 상실감이 어찌 당사자들의 개인적 판단력에만 기인하는 것이었으랴. 그와 그들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산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글 가운데 앙드레 지드와 이태준을 비교 분석한 부분에서도 두 작가의 입지(立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저한 시각차를 확인하게 된다. 스탈린 집권기의 소련은 서유럽의 두터운 지적 전통의 토양 위에 서 있는 프랑스 중산층 지식인에게는 결코 매력적인 세계도 아니었을 것이며 자신들의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여겨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제1세계의 청교도적 기독교 지식인인 앙드레 지드의 눈에 비친 스탈린 시대 소련과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제3세계 출신의 지식인 이태준이 목격한 2차 대전 승전 후의 소련은 전혀 다른 나라일 수도 있다. 내려다보는 소련과 올려다보는 소련은 다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또 어쩌면 이태준이 보았으나 지드가 보지 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김태연의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과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IRPT)의 발생 조건과 요인 비교연구」는 급진 이슬람 운동으로 알려져 왔던 두 조직을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구조, 프레임링 과정이라는 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중앙아시아 사회에서는 세속적 권위주의적 정부와 급진 이슬람 운동 단체의 대결이라는 동일한 구조의 대결이 펼쳐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개 양상이 각 사회마다 달랐다. 김태연에 따르면 두 조직은 모두 소비에트 말기에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찌에 힘입어 진행된 종교적 자유화 덕분에 국내정치적 기회구조를 확대시킬 수 있었으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들어서 두 조직의 길은 갈리게 된다. IMU는 닫힌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와 열린 국제정치적 기회구조에 놓인 반면, IRPT는 열린 성격과 닫힌 성격을 모두 갖는 국내·국제정치적 기회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한편 두 조직은 출범 당시부터 충원, 재정의 확보와 저항의 지속에 이르기까지 비공식 네트워크를 동원구조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가진다.

중앙아시아의 급진 이슬람 운동은 한국사회의 대다수 독자에게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가깝다. 그러나 유라시아 세계의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논자들에게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급진 이슬람 세력 형성과 변용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슬람 운동세력은 유라시아의 정치·문화지형을 어떻게 파악하고 바꾸고자 해왔는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김태연의 글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과문인지 몰라도 박정준이 그의 글 「러시아·미국 국외입양 논전에 나타난 아동의 소외」에서 살핀 러시아 아동의 미국입양 문제는 러시아-슬라브-유라시아 관련 학술지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주제가 아닐까 한다. 박정준은 한국 출신 국외입양인 문학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문학전공자이고, 그 후 입양인 문제를 계속 다루어왔다. 입양인 문제라면 세계 어디라도 누빌 자세가 되어 있는 그의 발길은 그리하여 러시아와 미국을 오가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실 글을 읽다보면 국제정치에서의 러시아의 귀환이니, 국제관계에서의 새로운 조정자로서의 러시아이니 하는 수사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탄식을 내뱉게도 된다. 세계패권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나라가 자국 구성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약한 존재들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박정준의 시야에 포착된 바로는, 이러한 상황은 국외입양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러시아 출신 입양아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다시 러시아인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격양시킨다는 순환구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자국 아동들의 복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하긴 어떤 사회인들 이 요청 앞에 그리 떳떳할까만.

동과 서를 함께 주시하며 유라시아의 패권을 고수하려는 쌍두의 독수리의 자의식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미지는 박종소의 논문 「러시아 문학과 스키타이 문명신화: 블록(A. Блок)의 「스키타이인들」을 중심으로」에서 분석된 몇몇 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푸슈킨의 독수리가 그나마 다소 방어적이라면 튜체프의 독수리는 날개의 넓이와 눈초리의 매서움을 과시하며 공격적인 제국주의적 야망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두 시인의 민족적 자기인식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스키타이적 정체성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그들의 시야에는 절대적 동방으로서의 아시아 또한 아직 어렵פות하게만 어른거리고 있다. 그 반면

에 20세기의 문턱에 서있던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나 그 문턱을 한참 넘어서 러시아 혁명 전후 시기 문명사의 대전환기에 들어서 있던 알렉산드르 블록의 눈앞에서는 아시아가 핵심이다. 아시아를 어찌할 것인가.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는 자신의 기독교 중심주의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대한 숨막히는 공포로 스스로를 포박하고 만다. 그러나 블록은 담대하게 러시아의 아시아성을 긍정하면서 가치의 전복을 통한 정체성의 재정립을 꾀한다. 그러면서도 유럽과의 형제적 관계를 포기하고자 하지 않았으니 블록이야말로 말의 원래의 의미에서의 유라시아적 지향성을, 유라시아주의라는 말의 창시자인 고전적 유라시아주의자들보다 더 선명하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박현섭은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향수」의 프레이밍 기법에 관하여」에서 이탈리아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타르코프스키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국경을 넘어 부유하는 러시아인의 마음을 추적한다. 이 러시아 예술가는 이른바 ‘자유와 광명이 넘치는 개명천지’에 있건만 국경 안에 두고 온 존재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한다. 박현섭은 그러한 감정들이 화면 분할 기법 속에 드러난다고 본다. 예컨대 화면을 가로지르는 중세 건축물들의 열주는 외국의 환경에 녹아들지 못하고 내면으로 수축하는 주인공 고르차코프의 자폐적 상황을, 나아가 서로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고립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기동들은 카메라의 움직임 속에서 명백히 계획적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있다. 즉 수직으로 분할된 공간이 타르코프스키가 부딪친 겹겹의 현실적, 심리적 장애를 이미지화하고 있다는 것이 박현섭의 해석이다. 원래 체호프 희곡 전문가인 그는 연극이라는 현장예술로부터 영화라는 ‘복제시대의 예술’로 옮겨와 언어가 아닌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 속에 투영된 인간의 정서를 다시 언어화한다. 영화 화면 프레이밍 기법 분석이라는 새로운 영토에 들어서서 문학연구자가 시도한 이미지 연구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독자들의 반응이 자못 궁금하다.

송은지의 「러시아어 화행동사(Speech Act Verbs)의 상 선택」은 화행동사들의 의미유형별 상 선택의 경향과 선호도 차이를 의미론적, 화용적 기능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화행동사는 발화에 의해 상대와 소통하거나 상대에게 작용을 미치는 동사들이다. 이 글에서 분석된 것은 러시아어에서 화행동사를 과거형으로 재현할 때 불완료상과 완료상 중 어느 상을 주로 선택하는가의 문제이다. 송은지는 종래에는 소통동사(verbs of communication)나 화행동사(speech act verbs)의 상 선택에서 일반적으로 불완료상이 선호된다고 주장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화용론적 분석에서 그 하부 의미유형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화행

동사 상 선택의 유형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어 화행동사를 37개 유형으로 나눈 후, 각각의 유형마다 상 선택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단순한 발화인이 청자의 행위를 이끌어내는가의 차이, 행위 자체의 종결성 여부, 발화 상황에서의 화자의 계산 여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인지적·정서적 조율,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위상, 행위 자체의 종결성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 등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 불완료상과 완료상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독자로서는 지금까지는 상 선택에서 ‘умолить’가 아니라 ‘умолять’가, ‘спрашивать’보다 ‘спросить’가 선호되는 이유를 따져볼 생각을 미처 못 했었더라도, 이제 이 글을 통해 그 내밀한 선택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양민종의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목소리 소설 시학: 5대 중편소설의 정치지향성과 목소리 소설 형태를 중심으로」는 알렉시예비치 목소리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두루 살핀다. 알렉시예비치가 201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체르노빌 원전 참사와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룬 작가임에도 한국에서 이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논문의 시도는 일단 의미를 가진다. 알렉시예비치 작품의 정치적 성격을 다루는 이 글 전반부는 노벨문학상 선정기관인 스웨덴 한림원에서 내놓은 선정 이유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양민종은 알렉시예비치 소설의 정치성이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고발이라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듯하다. 그리하여 “(한림원이 수상 이유에서) 언급한 고통과 용기는 전형적인 정치적 메시지이다. 우리 시대의 ‘고통’을 ‘목소리 소설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용기’가 선정 사유라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한다. ‘고통과 용기’를 정치적 메시지로 보기보다는 인간 삶의 보편적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견을 제시할지도 모르겠다. 이 글의 후반부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아다모비치의 문학 형태 실험’을 활용하여 소설로 엮어내는 알렉시예비치의 글쓰기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 제국 정부의 이슬람 정책은 제국의 팽창과 유지가 어떠한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승조의 「예카테리나 2세 시기 제정 러시아의 이슬람 정책과 오렌부르크이슬람총무청(ОМДС)의 역할」은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글이다. 양승조는 제정 러시아가 사용한 이슬람 정책의 본질은 병합한 지역을 제국 영토에 확고하게 결합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차르 정부는 필요에 따라 억압책과 유화책을 선택적으로 사용했다고 본다. 또한 이슬람 신도들을 러시아 제국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무슬

림 타타르가 제국 입장에서 유용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도 지적한다. 제정 러시아의 이슬람 정책에 대한 글이 희소한 국내 연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목의 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외국에도 이 주제와 관련된 문헌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한 논문필자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제국 후기와 소비에트 시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걸쳐 러시아의 이슬람 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경완의 많은 글은 자신의 연구주제를 기독교 신앙의 프리즘을 통해 투시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호에 실린 글에서는 사할린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한러 농업협력 방안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모색하고 있다. 필자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제간 연구의 핵심 사안은 사할린 주를 자원공급지나 죄수들의 유형지로 인식해온 근대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대신에 타자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기독교적인 관계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토대로 한국 측은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사할린 주민들의 자급자족형 농업생산 방식과 농업협동조합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농업생산자들의 혁신적인 영농사업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글은 말한다. 이경완은 국제협력, 근대 시민사회의 보편적 인권의 원칙의 전제 위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을 모두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전제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심사위원들이 이 글의 게재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천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글을 일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소 고민스러운 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러시아경제 연구자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주제 중의 하나는 역시 러시아 산업정책 속에서의 한러 협력 문제이다. 이상준과 이대식이 공동으로 집필한 「러시아 산업정책 및 산업공간의 변화와 한러 산업협력」은 경제위기에 처한 러시아의 산업정책 및 산업공간의 변화가 조성하는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한러 협력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글이다.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정책과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는 보호무역의 강화를 의미하므로 한러 산업협력을 위해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필자들은 중국경제의 도전 앞에서 앞으로 한러 경제협력의 규모가 증가하리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글은 한러 협력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방안

을 제시하고자 자임하지는 않는다. 고민이 무엇이지 털어놓고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것이 이 글의 역할이다.

최진석은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돋보이는 글을 보내왔다. 이번에 그를 사로잡은 주제는 혁명과 건축의 관계이다. 건축은 인간의 신체와 무의식에 작용하여 인간을 변형시키는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근대 사회에서 건축이란 인구의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포획하여 지배 및 통제하기 위한 국가와 자본의 전략으로서 추구되었다. 삶을 변형시키는 혁명의 과제는 건축 분야에서도 이 같은 국가와 자본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그의 글 「러시아 구축주의와 사회혁명: 새로운 삶과 인간의 형성을 위한 건축적 실험」에서 설파된 바에 따르면 구축주의자들은 혁명 이후 새로운 삶 속에서 형성될 새로운 인간은 무의식과 신체에 대한 훈련을 통해, 그것들을 직조하는 공간의 배치와 건설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리하여 건축의 문제를 혁명의 과제와 불가분하게 연결시킨 사람들이었다. 이 글은 “혁명기 정치적 전위와 예술적 전위가 교합하고 분기한 대단히 중요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치혁명이 지향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정치혁명 담론과는 달리 구축주의자들은 일상생활의 혁명에 관심을 가지며 습관과 습속, 곧 무의식을 주형하고자 했다. 박노해가 『노동의 새벽』에서 “오, 어머니 당신 속엔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일상 속에 뿌리박은 보수성을 괴로워하며 뿌리치고자 했다면 각성한 건축가들은 무의식을 주조하는 틀이었던 일상의 공간을 바꾸고자 한 점에서 좀 더 냉정했다고 할까. 최진석은 구축주의는 결코 실패한 기획이 아니었는지 모른다고 다시 한 번 그들을 보듬어 준다. 1차 자료에 대한 독해와 분석보다는 폭넓은 독서와 사유의 힘으로 글을 이끌고 간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문화사의 굵직한 주제들에 계속 천착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내놓은 필자의 역량에 엄지손가락을 세워주고 싶다.

권력과 영화의 정점에 있다가 몰락하여 비극적 최후를 맞는 이들의 극적인 운명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종종 이들은 생전의 자신들 삶의 궤적이 드러냈던 도덕성 여부나 미추와는 상관없이 사후에 종교적 신앙에 가까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상에서의 삶의 유한함을 슬퍼하는 장삼이사들이, 적어도 최후의 순간에만은 하잘 것 없는 민초 못지않은 고통 속에서 스러졌을 그들을 자기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일까. 일본 홋카이도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사나미 타카하시가 “Reexamining the Myth of the Last Tsar’s Family as a Religious Resource”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1918년 여름 스페르들로프스크(예카테린부르크)에서 총살된 로마노프 왕조 최후의 황제 니콜라이 2세 일가에 대한 평가의 변천사가 이 글에서 펼쳐진다. 니콜라이 2세는 소련 시기에만 해도 ‘흡혈귀 니콜라이’로 불렸으나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정교회의 성인화 정책에 따라 보리스와 글렙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어진 이’의 반열에 올랐고, 황제 일가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의 숭배가 행해지고 있다. 타카하시에 따르면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숭배는 자연발생적이고 비엘리트적이며 유연한 경건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한다. 현지 지역주민들의 역할도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반면 러시아 정교회의 공식 숭배는 이러한 자연발생성을 통제하려는 성격을 가진다. 이제 니콜라이 2세 일가가 사망한 곳은 성소가 되었고 순례자들이 이곳에 모여든다. 이 같은 현상이 군주주의의 열화와 같은 흥기로 이어지지야 않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띠게 될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하다.

좋은 서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사실 러시아-슬라브-유라시아 분야의 많은 학술지에서 서평란이 그다지 높은 대우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러시아연구』는 서평논문란과 서평란을 통해 이 분야 학술서적에 대한 심도 있는 비평의 기풍을 세워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번 호에 수록된 서광진의 서평논문 「18세기 러시아 문학사의 몇몇 교재에 대하여」는 그러한 시도가 거두고 있는 결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 글은 18세기 문학사를 개관하고 있는 세 권의 책을 소개하며 그 장단점을 논한다. 서평자에 의해 호명된 것은 다음의 책들이다. 1) Г. А. Гуковский(1999)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XVIII Века*, переиздание, Москва: Аспект Пресс, 2) W. E. Brown(1980) *A History of 18th Century Russian Literature*, Ann Arbor: Ardis, 3) Н. И. Либан(2005) *Лекции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서광진은 구소련 시대를 대표하는 구코프스키, 러시아 바깥 학계를 대표하는 브라운, 러시아의 새로운 학풍을 대표하는 리반, 이 세 학자의 18세기 러시아문학사를 숨씨 있게 해부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대한 봉우리를 한번이라도 쳐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문학성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서는 18세기 러시아 문학에 굳이 다가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광진은 18세기 연구는 당대 러시아의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러시아 문화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8세기 문학의 마당도 반드시 둘러보라고 초대장을 보낸다. 서광진의 서평논문이 18세기 러시아 문학사, 문화사에 대한 이해를 위한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박선영은 국내연구자들이 번역한 『메이예르홀트의 연출세계』 전 4권을 소개하며 그 의의를 짚은 서평을 투고해 주었다. 스타니슬라프스키에 이어 메이예르홀트 또한 한국의 문학인, 연극인들이 애호하는 이름이 되리라는 예감이 든다.

이렇게 일별하고 보니, 이번 호에 실린 논문들은 큼직큼직한 걸음으로 러시아의 안과 밖을 둘러보고자 하는 주유객을 위해 좋은 안내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의 영토와 유라시아 대륙의 규모만큼 광범하면서도 시의성이 큰 주제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큰 걸음과 넓은 시야로 인해 구체성이 상실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읽기와 관찰하기와 생각하기의 끊임없는 교차과정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글쓰기의 기본임을 대부분의 필자들은 체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는 열네 편의 논문과 한 편의 서평을 실었고 논문 중에는 상당한 분량을 자랑하는 글들도 있는 만큼 꽤 두툽한 책이 되었다. 『러시아연구』 편집자들은 『러시아연구』가 러시아-슬리브-유라시아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언제나 희망하며 이번 호도 그 속에서 한 튼실한 부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6. 11. 25. 편집위원장 한정숙